

‘황재균에 러브콜’ kt 더 급한 불 외인에이스

최근 2년간 최하위 원인은 스카우트 실패 돈 로치 2선발급...정상급 선발투수 필수

김진욱 kt 감독은 구단에 코너 내야수와 선발투수 보강을 요청한 상태다. 프리에이전트(FA)시장에서 kt는 선발 투수 보강에 실패했다. 우규민(31) 영입전에 뛰어 들었지만 삼성의 발 빠른 행보와 시장 예상액수보다 많은 4년 총액 65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계약을 뛰여넘지 못했다. FA 내야수 중 최대어로 꼽히는 황재균(29)을 둘러싼 경쟁은 아직 진행 중이다.

그러나 2017년 kt에 황재균보다 더 급한 첫 번째 과제는 외국인 에이스 영입이다. kt가 지난 2년간 최하위를 기록한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 선수 스카우트 실패였다.

1군 데뷔시즌이던 2015년, 에이스 역할을 기대했던 필 어윈은 12경기에서 1승7패 방어율 8.68을 기록한 뒤 교체됐다. 앤디 시스코는 승리 없이 6패 방어율 6.23에 그쳤다. 3선발 후보였던 크리스 옥스프링만이 선발 로테이션을 완주했고 12승(10패)을 거뒀다. 2016시즌 역시 슈가 레이 마리몬과 트래비스 밴와트가 각각 6승에 그쳤다. 특히 kt 외국인 투수들의 이닝 소화능력은 심각했다.

2017시즌 kt는 신생팀 특혜가 모두 사라진다. 외국인 투수 보유도 최대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다. 황재균을 통한 3루 수비 강화와 타격 보강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에이스 영입에 따른 결과가 탈 꼴찌 도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kt는 11월7일 우완 투수 돈 로치(27)와 총액 85만 달러에 계약한 뒤 이례적으로 "돈 로치는 2선발 후보다. 더 뛰어난 정상급 에이스를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kt의 계획은 총액 100만 달러 안팎의 지출로 제2의 더스틴 니퍼트가 될 수 있는 특급 외국인 에이스 영입이다. 심혈을 기울여 영입 리스트를 작성했고, 실제 접촉도 이뤄지고 있다. 구단의 지원도 적극적이다. 김진욱 감독도 "외국인 투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2명의 외인 선발 투수의 이닝 소화



kt는 FA 황재균(사진) 영입을 노리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급한 과제는 외국인 에이스를 영입하는 것이다. 지난 2년간 외국인투수 스카우트 실패로 최하위에 그쳤기에, 팀의 중심을 잡아줄 에이스 영입은 필수조건이다. 스포츠동아 DB

능력 등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kt는 연봉조정신청자격 획득 후 구단과 협상 과정에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등 잠재력이 큰 투수들의 최종 메이저리그 재도전과 KBO리그 진출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27일(한국시간) MLB.com은 "미네소타의 새 프런트가 박병호의 가치와 장타력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달려있다"고 했다. 박병호로서 새 프런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 또 하나의 과제가 생긴 셈이다. AP뉴시스

ML 2년차 박병호 활용법, 미네소타 새 프런트에 달렸다

신임 레드 레빈 단장 전력구상 변화 예상 MLB닷컴 "박병호 가치·장타력 판단 중요"

메이저리거 2년차가 된 박병호(30·미네소타)의 2017년은 어떤 모습일까.

메이저리거 공식홈페이지 MLB.com은 27일(한국시간) 미네소타 팬들과의 Q&A(질 의·응답) 코너를 마련했는데, 여기서 박병호의 활용법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박병호와 유망주 케니스 바르가스의 활용도가 겹치기 때문이다.

현재 박병호와 바르가스는 팀 내에서 지명 타자와 백업 1루수 자원으로 분류된다. 1루엔

간판스타 조 마우어가 견재하다. MLB.com은 박병호에 대해 '잠재력을 발휘한 순간들이 있었지만, 부진한 시간이 더 길었다. 결국 트릴플A로 내려가 부상으로 시즌을 마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트레버 플루프의 방출과 이로 인한 미겔 사노의 3루 이동을 언급하면서 '그럼에도 바르가스가 타석에 설 기회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병호와 함께 지명타자를 나눠 맡았던 사노가 3루로 고정돼도 바르가스의 기회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바르가스는 올해 부상으로 자리를 비운 박병호의 대안으로 빅리그 47경기서 타율 0.230·10홈런·20타점을 기록했다. 그러나 팀내 입지

가 박병호보다 앞선다고 볼 수는 없다. 바르가스가 마이너리그 옵션을 모두 소진한 것도 문제다. MLB.com은 이에 대해 '현 시점에선 바르가스를 통해 투수를 보강하는 게 현명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병호에겐 환경의 변화가 있다. 자신을 영입한 테리 라이언 단장이 경질되는 변수가 발생했다. 박병호의 비중은 신임 레드 레빈 단장의 전력 구상에 달려있다.

MLB.com은 '미네소타의 새 프런트가 박병호의 가치와 장타력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달려 있다. 박병호가 부진할 경우, 바르가스가 대안 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영노 기자 nirvana@donga.com

kt스포츠, 유태열 신임 사장 선임

3년 만에 그룹 출신 대표이사 "팬들에게 신뢰·감동 드리겠다"

야구단 최고경영자(CEO)로서 최적임자에 대한 시선은 엇갈린다. 여전히 KBO의 주류 시장은 모기업에서 더 많은 지원을 이끌어내고 큰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그룹 출신 사장이 적임자다. 가까운 예는 그룹 오너의 깊은 신임 속에 야구단 사장에 취임해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내면서 4년 연속 한국시리즈 우승을 일군 김인 전 삼성 사장이다.

kt는 3년 만에 다시 그룹 출신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27일 kt스포츠는 주주총회를 통해 유태열(56) 사장을 선임했다. 그룹 정기인사가 12월 초에서 내년 1월로 연기됐지만 11월 30일 김준교 전 사장 사임 이후 경영공백이 한달 가까이 이어지자 서둘러 새로운 컨트를 타워를 선임했다.

kt는 2013년 창단 준비와 함께 그룹에서 여러 실무를 거친 권사일 사장을 초대 CEO로 선임했다. 그러나 2014년 이석재 전 그룹 회장이 물러나면서 외부에서 김영수 전 LG스포츠 사장을 CEO로 영입했다. 2016시즌을 앞두고는 파격적으로 중앙대학교 미대 교수 출신인 김준교 전 사장이 임명됐다.

CEO의 잦은 교체 속 kt그룹은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한 김준교 전 대표의 후임으로 유태열 kt cs 사장을 kt스포츠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구단 내에서는 그룹에서 발언권이 있고 합리적인 리더로 평판이 좋은 CEO가 선임됐다고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프리에이전트(FA) 시장과 외국인 선수 계약 등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에 그룹 실력자가 야구단 사장에 취임했다.

유 신임 사장은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를 졸업



kt는 27일 주주총회를 통해 유태열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11월30일 김준교 전 대표이사가 사임한 뒤 공석으로 남아 있던 자리가 거의 한 달만에 채워진 것이다. 유 대표이사는 "3번째 시즌을 맡는 kt를 도약시켜 팬들에게 신뢰와 감동을 드리겠다"고 했다. 사진제공 | kt스포츠

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 경영과학 석사와 재무관리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4년 kt에 입사했고 기획조정실, 총남본부장(상무), 경제경영연구소장(전무)을 역임했고, 2015년부터 고객 상담 서비스 계열사인 kt cs 사장을 맡아왔다.

kt스포츠는 "경영 리더십과 마케팅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CEO다. 선수단의 과학적인 육성, 팬 친화적 경영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유 신임 사장은 "국내 최대 규모 스포츠 전문기업인 kt스포츠 사장을 맡게 돼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 3번째 시즌을 맡는 kt 위즈를 새롭게 도약시켜 팬들에게 신뢰와 감동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롯데건설

2016년, 캐슬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세상을 놀라게 할 또 한 번의 변화,

지금 롯데캐슬이 시작합니다

당신의 라이프스타일을 바꿀

새로운 캐슬을 기대하세요

NEXT CASTLE